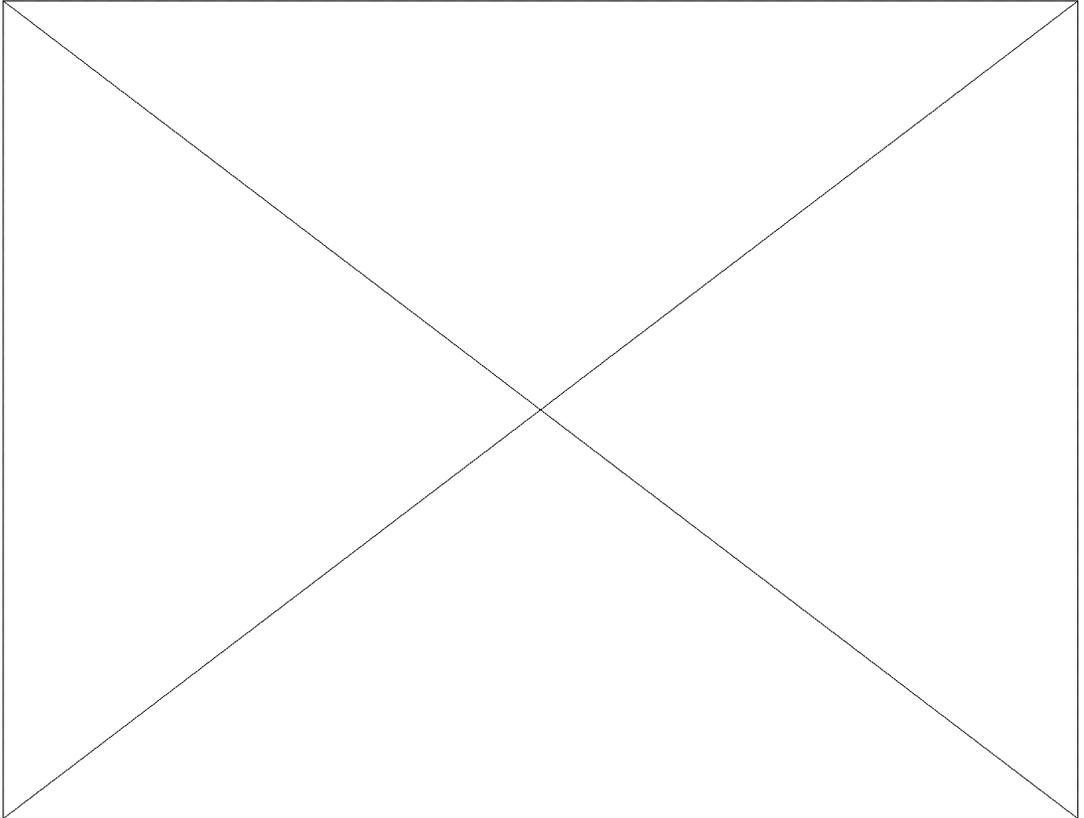


※ 업무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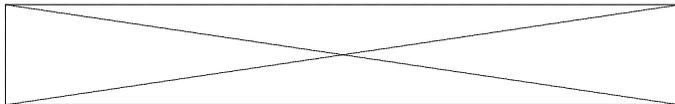
1. 처음 모이는 장소와 시간:
 2. 각 장소 이동방법, 시간, 비용 : 황선호
 3. 성심원에서 프로그램 : 이임주
 4. 소록도에서의 숙소 : 자원봉사센터
 5. 소록도에서 프로그램 : 이임주 (연극: 김윤하, 합창: 황선호, 수화: 장희숙, 풍물: 손진근)
 7. 나로도 숙박, 프로그램 : 남경록, 황선호
 8. 장성에서 프로그램 점검 : 태영철
 9. 갯벌체험 : 태영철
 10. 광주 5.18유족과의 만남 : 김윤하
 11. 가정학습 중 과제 전달 : 선선옥
 12. 평가 및 설문지 작성 : 이임주
 10. 자료집 : 선선옥
 11. 의료담당 : 이임주
 12. 촬영, 기록 : 이임주, 선선옥
 13. 총무 : 남경록
 14. 사례집 : 남경록
- *부모님 협조사항 : 성심원에서 5박6일 먹을 반찬
나로도 함께 하실 분

2005 움직이는 학교
간디청소년학교 2학년들의 봉사 체험기

‘피-구 날리리’
꼭 청산 기나 소록도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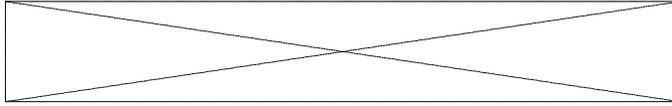


- ※언 제 : 2005년 6월 13일(월) -2005년 7월 4일 (월) (3주간)
- ※함 께 해 요 : 교사 이임주, 태영철, 김윤하, 남경록, 선선옥, 황선호
김강산, 김동환, 김지은, 라윤정, 박철중, 안지백
용혜정, 유태영, 이성주, 이어진, 이에나, 이 운
이태근, 장시내, 전종명, 전유리, 전유림, 정운영
정 현, 한진규, 한이정, 홍시내



차례 -----

약속해요	-----	2
설레임	-----	3
자원봉사?	-----	4
이것만은 꼭 챙기자	-----	5
움직이는 학교가는 길	-----	6
성심원	-----	7
성심원에서있었던일	-----	9
소록도	-----	14
한센병	-----	15
소록도에서있었던일	-----	19
나로도	-----	28
장성한마음공동체	-----	22
장성에서있었던일	-----	23
갯벌	-----	25
광주	-----	27
5.18민중항쟁	-----	28
유족회분들과함께	-----	29
시와노래	-----	30
비상연락망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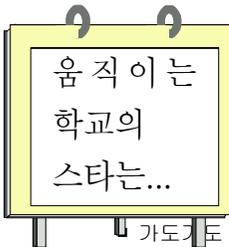


단체 여행이므로 질서와 시간을 지켜 주세요.
언제 어디에 있거나 '간디인'으로 판단, 평가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개인 소지품은 각자가 철저히 관리하세요(현금이나 귀중품은 특별한 관리를 디카, 핸드폰, MP3소지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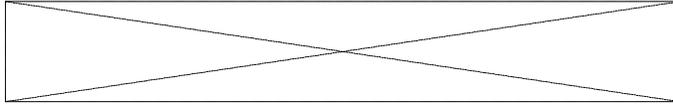
※성심원과 소록도에서의 유의사항

- ◎모든 생활의 우선은 성심원과 소록도에 계신 분들입니다.
-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갑니다.(민소매 티셔츠, 탱크탑, 짧은 반바지, 찢어진 바지 등)
-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의
 - 인사할 때는 보이는 쪽에서 먼저 말을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 길을 걸을때는 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자기 팔을 빌려주고 시각장애인의 반보 앞에서 걸어가갑니다.(팔을 잡고 걷게되면 수월함)
 - 지팡이나 그것을 잡은 손을 잡는다든지 당기는 것은 금합니다.
 - 방향이나 장소를 알려드릴 때는 전후, 좌우, 몇 발짝, 몇 미터 등 도로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계단은 오르고 내림을 정확하게 설명한 후 걷는다.
- ◎활동중 가구나 그 밖의 생활용품에 대한 파손과 손실의 위험성에 항상 대비하고 필요에 의해 이동된 물건은 항상 원위치 시켜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 ◎마을방문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읍시다. 봉사활동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못 찾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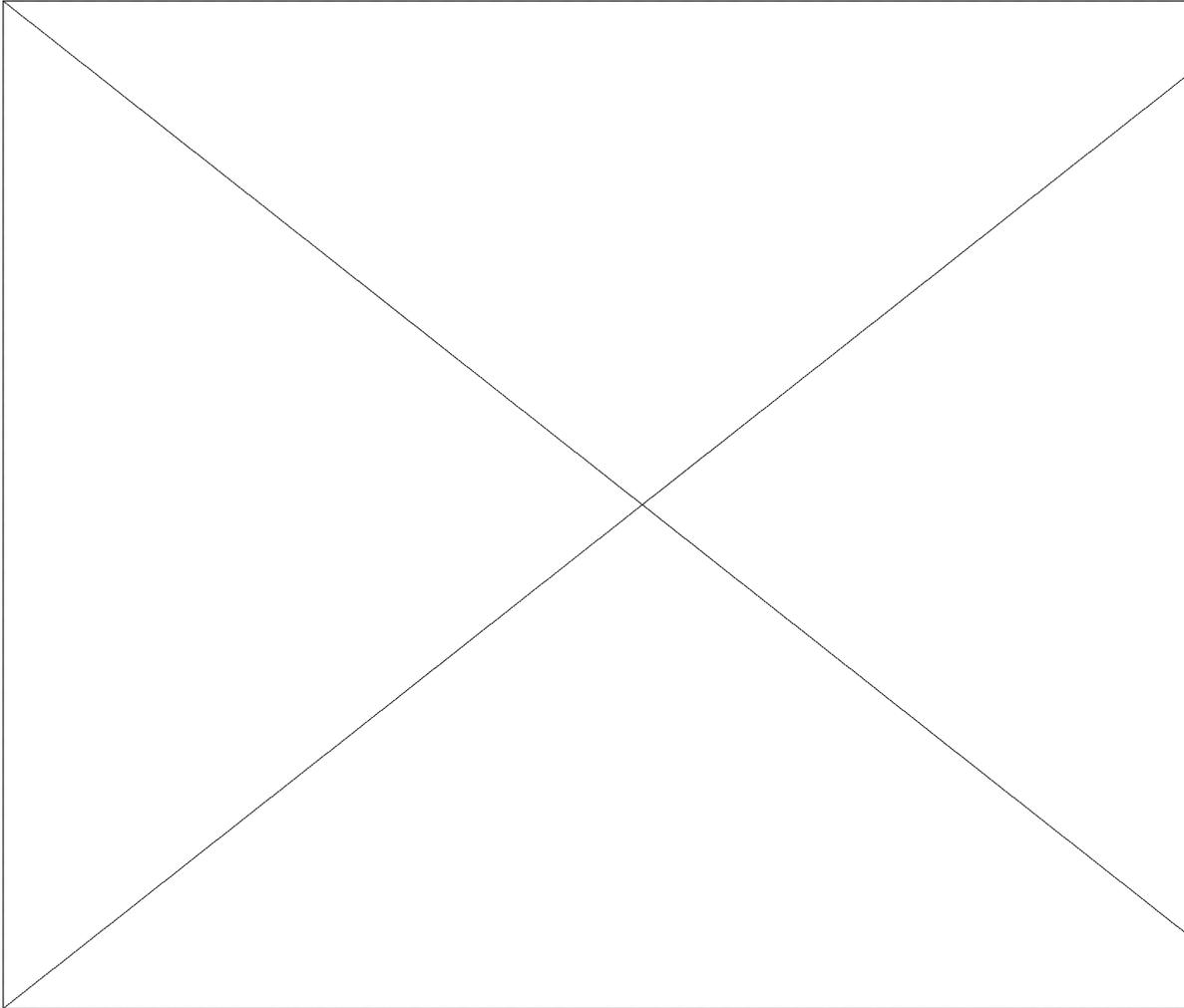
- 끼니를 가끔 거름으로써 우수한 체력을 과시한다.
-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으며, 인사를 하지 않는 용맹성을 과시한다.
- 약속은 무조건 하고 본다.
- 집행위원의 지시사항은 절대로 듣지 않으며, 특강시간에는 잠을 보충하는 요령을 피운다.
-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과는 스킨십을 피하며,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의문사항이 생기면 혼자서 처리한다.
- 소록도의 이곳 저곳을 카메라에 담다둔다.
- 저녁 10시부터는 소록도에서 가고싶은 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 조별모임에는 '침묵은 금이다'를 지키며 금모임에 열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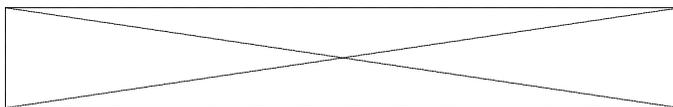
- **가도기도** 책을 읽어봅시다.
- **가도기도** 천국 (이청준/문학과 지성)
- **가도기도** 황룻길 (한하운/지문사, 김선/예가출판)
- **가도기도** 문동이성자 다미안 (가빈도우즈/바다출판)
- **가도기도** 소록도 사슴섬에서 온 편지 (알돌기획) 등



📖 '당신들의 천국'을 읽고.....



📖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읽고 싶은 것은?



📌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의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남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복지와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보수없이 행하는 사랑의 활동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지탱케 하여 주는 힘도 말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

하나. 항상 기쁜 마음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공손한 언어로 봉사활동에 임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둘.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활동은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셋.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봉사 대상자의 개인적인 일이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넷.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다섯.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봉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섯.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웃는 얼굴로 봉사해야 합니다.

일곱. 봉사활동 중 언짢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른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여덟.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봉사를 하도록 하며, 봉사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도와주지 않도록 합니다.

📌 자원봉사자가 지켜야할 수칙

하나.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 봉사시작 전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병원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도록 합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 봉사시작 전 어르신들의 정보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며, 본인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 봉사활동 담당자와 약속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봉사대상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봉사활동 담당자에게 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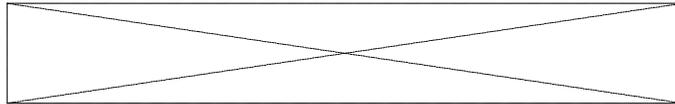
여섯.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이나 모임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원봉사회관과 병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 자원봉사일정표를 지켜야하며, 자원봉사자용 조끼를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여덟. 봉사자의 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단정하고 간편하며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슬리퍼, 맨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담당자에게 알리고 봉사활동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열.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환자들의 안정과 치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삼가도록 하며, 병동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봉사활동을 합니다



1. **여행용 배낭** 짐은 가능한 최소로 하며. 배낭을 저서 두 손을 언제나 사용 수 있도록 한다.

2. **세면도구** : 치약, 칫솔, 세수비누, 빨래비누, 그린비, 수건(2-3) 등

3. **옷과 신발** :

① **옷** : 활동적이며 세탁이 잘 되고 말리기 쉬운 옷 준비

속옷(3-4벌), 광주 및 소록도에서 입을 평상복(반바지, 반팔티 2-3벌), 수영복 (있는 사람만),

봄가을용 잠바, 운동복(긴팔, 긴바지) , 양말(3-4켤레), 모자, 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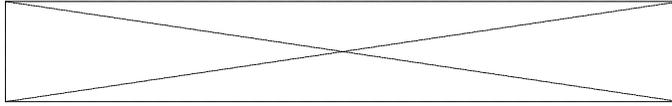
②**신발** : 여행과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깨끗한 신발로 준비 (운동화, 여름샌들)

4. **약품** : 평소에 복용하는 약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 케이스도 잊지 말고 챙긴다

5. **기타** ① 노트, 필기구

② 손전등, 비닐봉투나 지퍼팩-젖은 옷이나 짐 정리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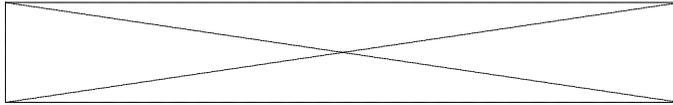


학교가는길	일정/시간	오전	오후	저녁
산청 성심원에서	6/13/월		15:00 진주터미널	산청성심원 도착
	6/14/화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15/수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16/목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17/금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소록도에서	6/18/토	08:00 소록도로 출발	진주-순천-녹동-소록 도 도착예정(15:00)	소록도 자원봉사센터
	6/19/일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0/월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1/화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2/수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3/목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4/금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5/토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6/일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6/27/월	봉사활동	봉사활동	공연	
나로도에서	6/28/화	10:00 나로도로 출발	나로도 도착예정(12:00)	한여름밤의 꿈
	6/29/수	10:30 장성으로 출발	나로도-고흥-광주-장 성 도착예정(16:30)	장성 한마음공동체
장성 한마음공동체 에서	6/30/목	장성 한마음공동체		
	7/1/금	문화체험		
	7/2/토	갯벌체험		

광주에서	7/3/일	09:00 광주로 출발	망월동 참배	5.18 민중항쟁 유족회원과 함께
	7/4/월	11:00 집으로 출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남은 진주터미널에서 15:00 입니다.



1. 성심원은 어떤 곳이지요?

성심원은 작은형제회 이태리 리구리아 관구 소속으로 1955년 12월 15일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고스탄조 주뵈니 신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받은 한센병 환우들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2. 성심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내역은?

생활보조 봉사 : 식사수발, 청소, 말벗, 목욕, 세탁등
 의료봉사 : 치료 및 진료, 간병등
 기술봉사 : 전기 및 전자제품 수리, 이발 및 미용(파마), 컴퓨터등
 주방봉사 : 취사 및 설거지
 위문봉사 : 레크레이션, 전통악기 및 밴드공연
 노력(근로)봉사 : 제초작업, 시설내의 건물 및 주변 환경정리

3. 생활모습

1)요양원

요양원은 2003년 8월에 축복식을 가진 후 최신설비와 공간배치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원 2층과 3층 생활관에는 남녀 어르신 104분이 계십니다(부부요양소 포함). 요양원 1층은 전문 의료장비를 갖춘 의무과와 식당, 매점과 마을대표사무실, 영안실, 세탁실과 이·미용실이 있습니다. 2층은 성당과 직원 사무실, 식당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시청각실, 공동방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전원이 가톨릭 신자이고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으며 대부분 한센병에 따른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내에 성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으며 건물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활관은 1인 1실에서 3실까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이며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식사부터 개인생활,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도와 드립니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요양원 2층에 24시간 집중치료를 운영하며 간호사 수녀님들과 전문의료진의 도움으로 상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생활인들을 위한 별도의 요양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양원과 마주한 루케치오의 집에서는 8쌍의 부부를 모시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인근지역 외출을 위한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텃밭 가꾸기 외에 음악, 미술, 다도 등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 프랜시스꼬집

독신으로 생활하는 할아버님 27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고 건강이 양호하신 분들이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생활 하시도록 도와 드립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원내의 환경미화나 공동작업, 원내 경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별도의 식당을 운영하여 각종 여가프로그램과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 가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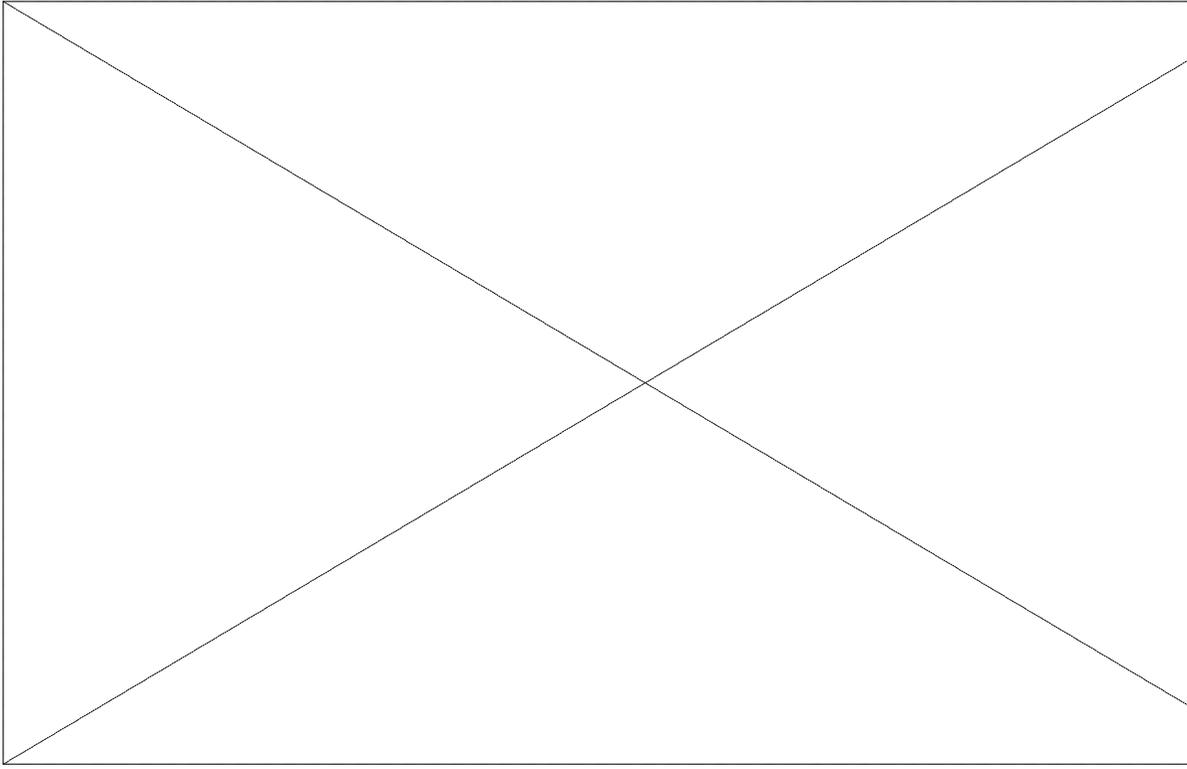
성심원의 독특한 서비스 유형인 가정사는 그룹 홈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형태를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 드리며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나 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합니다. 현재 103명의 생활인들이(부부나 기타 가족형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양호한 분들은 텃밭가꾸기나 기타 소일거리로 일과 여가생활을 하시며 연로하신 분들은 기도생활이나 산보 등을 하십니다. 한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생활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인자녀 장학금과 생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명절과 축일 등 각종 행사 시에는 요양원 어르신들과 가정사 어르신들을 함께 모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춤과 노래 등의 공연을 즐기며 기쁨을 나눕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를 때에도 생활인과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와 슬픔을 나누는 등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이 아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성심원에서 있었던 일 ×

2005년 6월 13일 월요일 날씨:

☆오늘 누구 만나 뒀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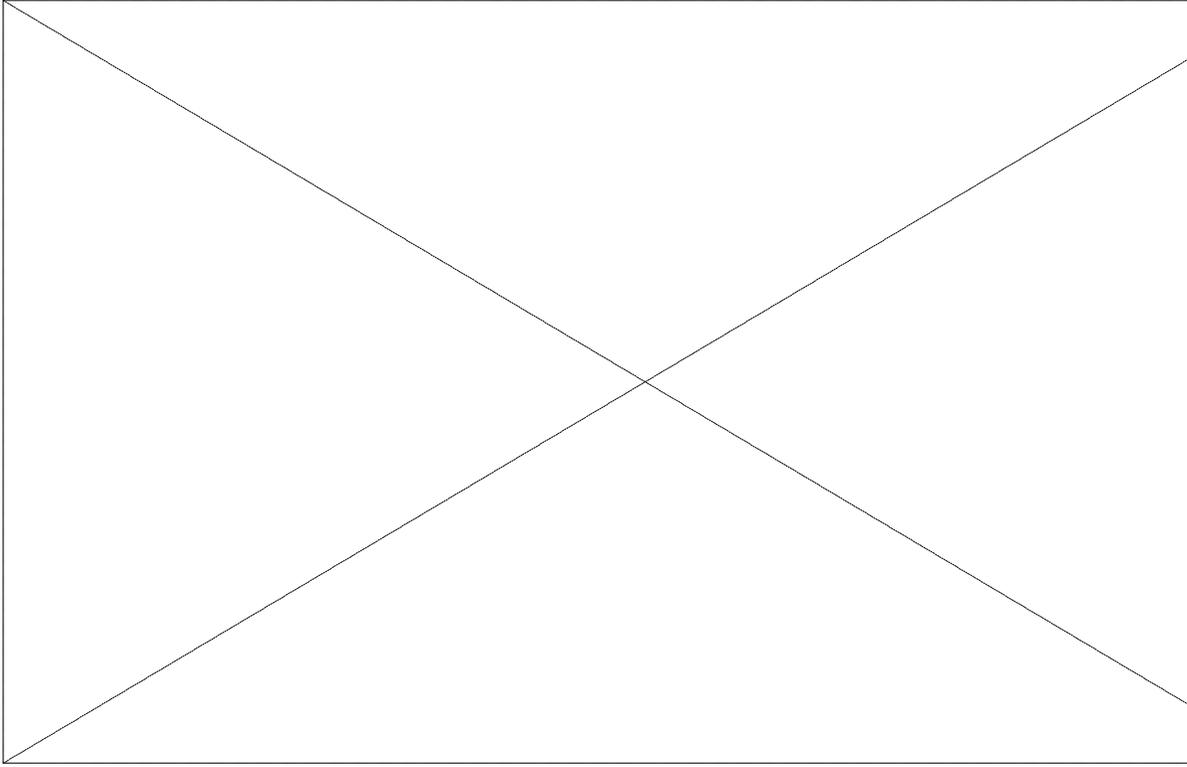


☆내일 할 일이 뭐야?

× 성심원에서 있었던 일 ×

2005년 6월 14일 화요일 날씨:

☆오늘 누구 만나 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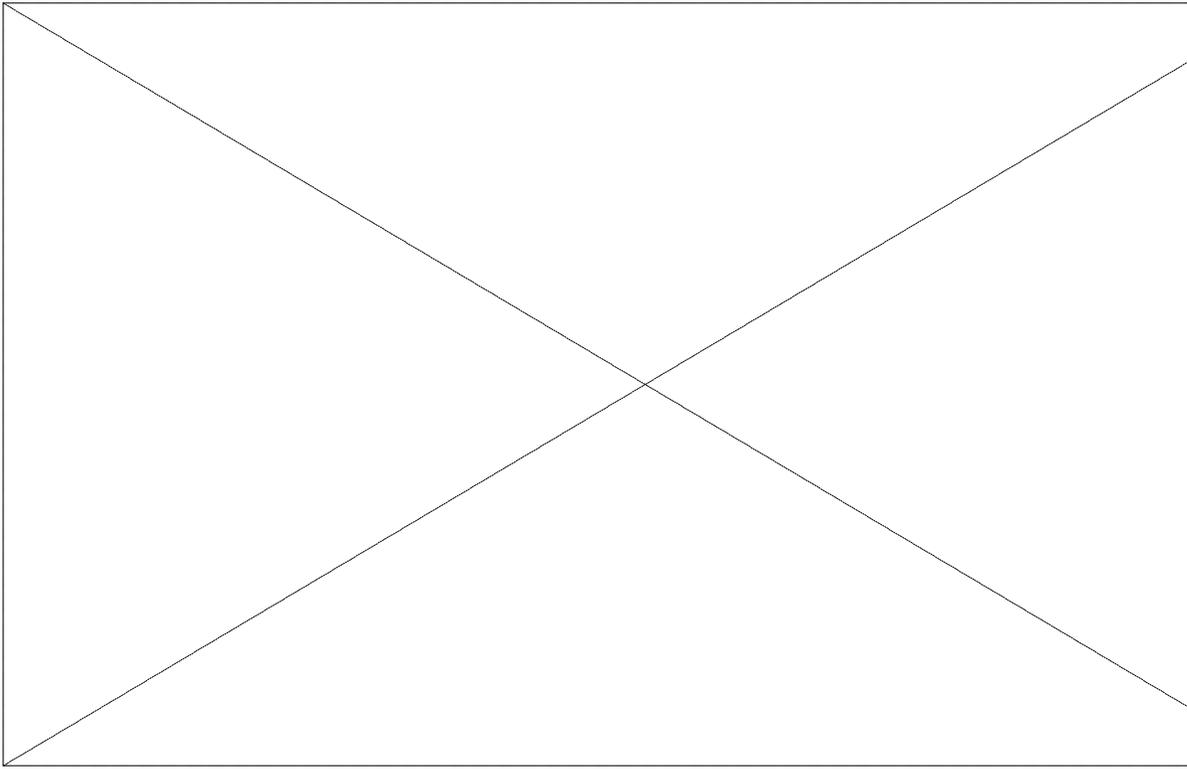


☆내일 할 일이 뭐야?

× 성심원에서 있었던 일 ×

2005년 6월 15일 수요일 날씨:

☆오늘 누구 만나 뭐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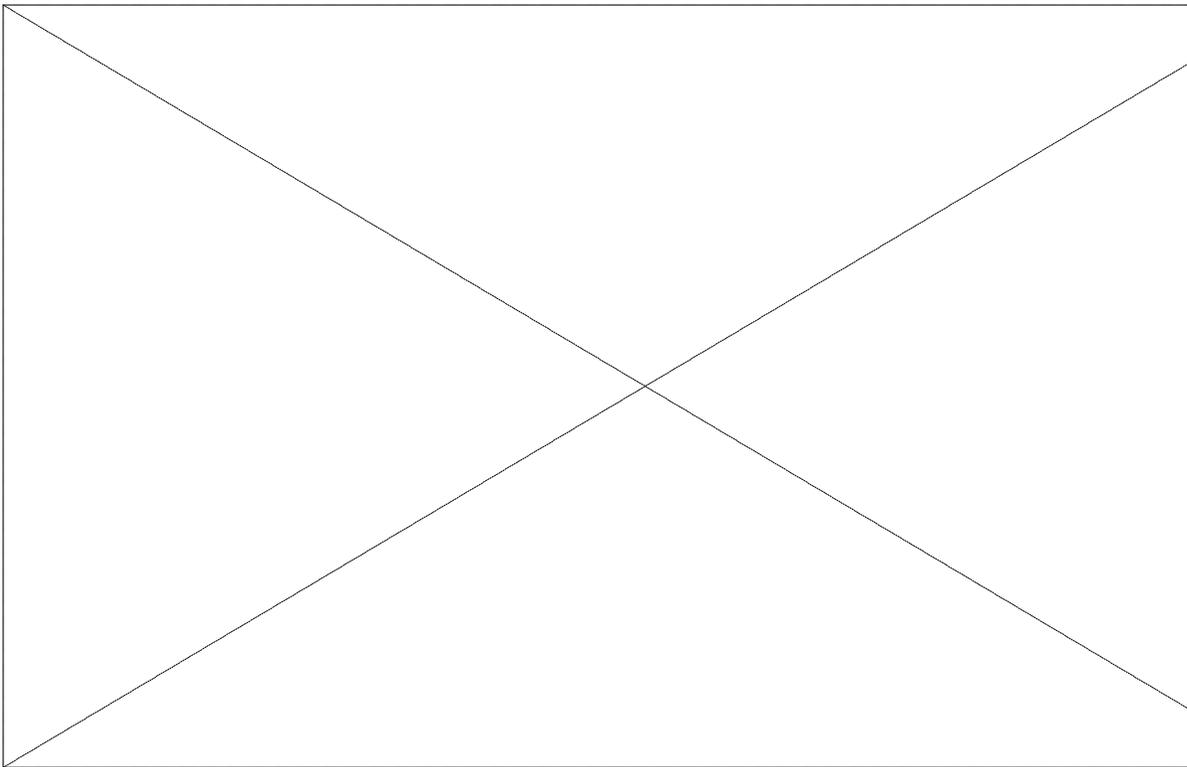


☆내일 할 일이 뭐야?

× 성심원에서 있었던 일 ×

2005년 6월 16일 목요일 날씨:

☆오늘 누구 만나 뭐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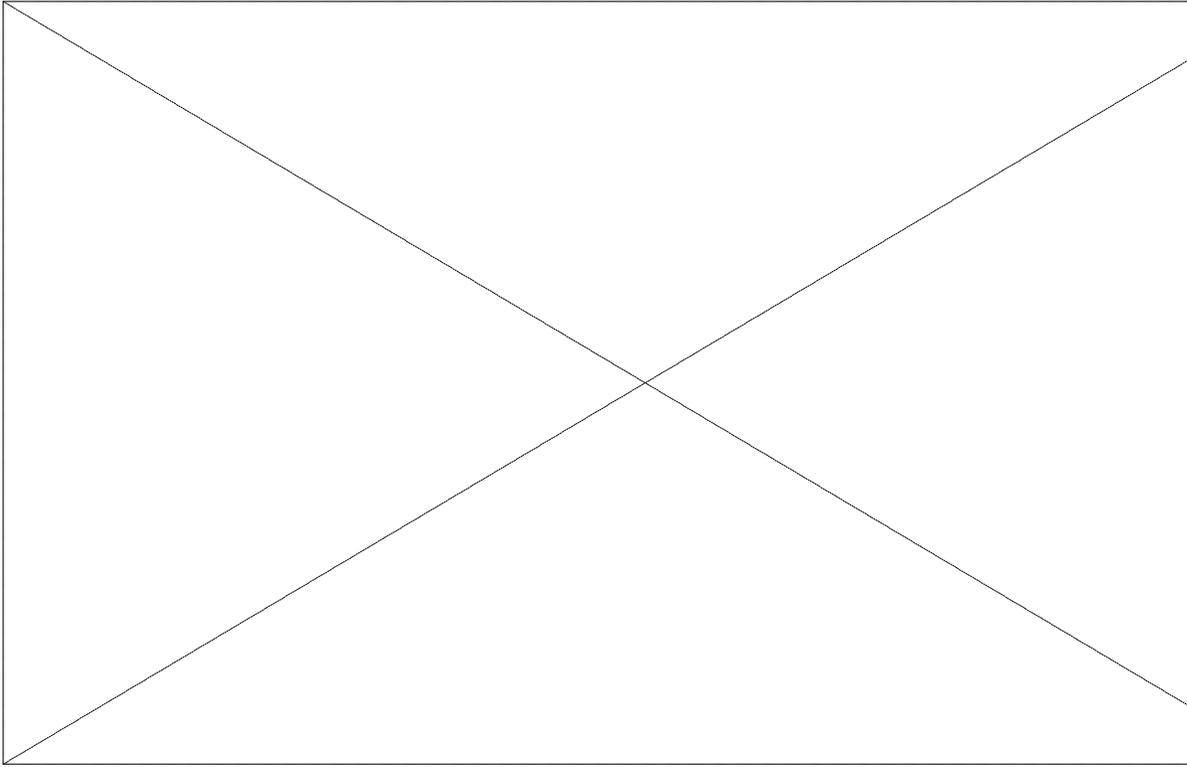


☆내일 할 일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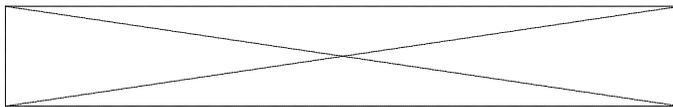
× 성심원에서 있었던 일 ×

2005년 6월 17일 금요일 날씨:

☆오늘 누구 만나 뒀었더라?



☆내일 할 일이 뭐야?



1. 소록도 [小鹿島]

1)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딸린 섬입니다.

면적 4.42km², 인구 890명(2001)입니다.. 해안선길이 14km이고, 고흥반도 남쪽 끝의 녹동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이름은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센(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한센병 환자와 병원 직원들만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2)농산물로는 쌀·보리·마늘·생강·유자 등을 생산하며, 어업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은

나병환자와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이 대부분이고, 취락은 주로 북동쪽 해안가에 집중 분포하며, 병사지대와 직원지대로 구분됩니다..

3)국립소록도병원은 1910년 외국 선교사들이 소록도에서 운영하던 ‘시립나요양원’에 나병환자들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16년 ‘소록도자혜병원’으로 정식으로 개원하였으며, 1960년부터 수용 위주에서 치료 위주로 관리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소록도갱생원’, ‘국립나병원’ 등 여러 이름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유적으로는 6·25전쟁 때 이곳을 지키다 순직한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는 순록탑, 그리고 육영수 여사의 공덕비, 한하운 시인의 시비 등이 있습니다. 섬 전체가 울창한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룰 뿐 아니라, 동쪽 해안에는 해수욕장이 있으며, 섬의 남단에 소록도 등대가 있습니다.

2. 소록도 자원봉사

☞단기자원봉사자 일정표(7일 미만)

시 간	봉 사 일 정
05:00 ~ 07:00	새 벽 봉 사
07:10 ~ 08:30	아 침 식 사
08:30 ~ 11:30	오 전 봉 사
11:30 ~ 12:30	점 심 식 사
12:30 ~ 17:30	오 후 봉 사
17:30 ~ 18:30	저 녁 식 사
18:30 ~ 23:00	자 유 시 간
23:00 ~	취 침

※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계없이 봉사를 실시합니다.

※ 7일 이상 봉사자는 새벽봉사 없이 오전봉사만 실시하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쉽니다.

☞자원봉사 활동

① 봉사장소 : 3개병동, 7개마을

② 주요봉사내용

※ 병동 : 목욕, 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재활운동 보조, 손.발톱 정리, 세탁물 및 오물 처리

※ 마을 : 청소, 빨래, 치료실 이동, 산책, 심부름, 설거지, 장비기, 손.발톱 정리 등

③ 봉사시간

※ 단기봉사자(7일 미만) : 05:00 - 18:00(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봉사 실시합니다)

※ 장기봉사자(7일 이상) : 08:30 - 18:00(토요일 오전 봉사, 공휴일 및 일요일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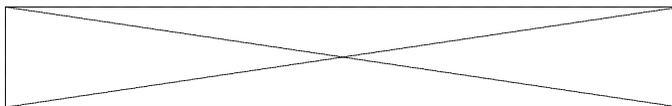
- 병동에서 봉사할 경우 해당병동의 사정에 따라 봉사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숙소 : 자원봉사회관(샤워실, 세탁기, 휴게실, 조리실, TV, 냉장고, 컴퓨터 사용 가능합니다)

⑤ 단체봉사자 및 자원봉사체험교육생

※ 봉사시간 및 체험교육시간은 단기봉사자와 동일합니다.

- ※ 숙소는 자원봉사회관 단체실(남.녀 각 20인실)이며 휴게실 및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조리가 필요한 경우 1층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활동 양식(봉사일지, 소감문, 명찰 및 명단)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센병이 뭐예요?

1. 한센병(Hansen's Disease, HD, Leprosy) 이란 무엇인가요 ?

한센병은 나균 (Mycobacterium leprae) 에 의한 제 3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주로 체온이 낮은 피부와 눈, 손, 발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침범합니다. 국내에서는 약 20 명 내외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18,000 명 정도입니다.

2. 성경의 나병과 한센병은 같은 것인가요?

성서에서 말하는 leprosy(나병) 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의 뜻은 깨끗하지 못한(unclean), 거룩하지 못한(unholy), 부정한(profane) 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한센병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3. 어떻게 전파되는가 ?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배출된 나균에 오래 동안 접촉한 경우에 발병합니다. 침입경로는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접촉자들은 나균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5%는 한센병에 자연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나균을 배출하는 환자의 경우도 리팜핀(리팜피신) 600 mg(4알)을 1회 만 복용하여도 체내에 있는 나균의 99.99% 가 전염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고, 성적인 접촉과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4. 유전되요 ?

절대 아닙니다. 가족 내 한센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이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답니다.

5. 가족들은 치료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1명이 한센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자세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며, 의사에 의한 추후검사가 필요합니다.

6.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피부의 색깔이 변한 작은 부위가 나타나며, 자각이 소실되거나(통증이나 온도에 대한 감각이 소실됨) 모발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커지거나 새로운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 팔, 다리, 등에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지 말단부의 지각소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진단보다는 의사들의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7. 손발의 수지 말단이 떨어져 나간다고 들었는데 --- ?

손가락 발가락의 감각 소실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손상받고 감염이 생기게 되면 수지 말단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되어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습니다.

8. 진단하는데 어떤 검사들이 필요해요 ?

1) 피부의 감각신경 검사

의심스러운 부위의 감각신경을 검사한다.

2) 피부도말검사(slit smear)

피부의 일부를 2-3 mm 절개하여 조직액을 채취하여 나균에 특이한 항산성균 염색을 실시하여 나균을 확인한다.

3) 조직검사(tissue biopsy)

피부의 일부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한센병에 해당하는 병리소견이 있는지 확인한다.

4) 현재로는 혈액을 통한 검사는 개발된 것이 없다.

9. 한센병의 반응(나반응)은 무엇인가요 ?

약제나 체내 저항력이 나균을 살해한 후, 죽은 나균에 대하여 우리 몸이 통증, 발열, 결절, 발진, 근육통 등의 급성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죽은 나균이 체내에서 제거되는데 몇 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나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50 %에서는 치료도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반응은 한센병이 악화되거나 치료 약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약물에 대한 알러지반응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균에 대하여 체내 면역반응이 반응한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나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나반응으로 인하여 이미 있는 발진이나 결절이 더 커지며, 통증과 손 발의 신경이 붓거나 심한 신경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나반응의 기간 동안은 눈, 손, 발의 신경에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며, 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10. 나반응이 발생한 경우 치료약제를 계속 복용하는가 ?

나균을 살해하는 치료약제를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나균이 다시 증식할 위험이 있고, 한센병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나반응에 관한 치료 뿐 아니라 한센병에 관한 치료약제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11. 나반응은 어떻게 치료해요 ?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타일레놀을 복용합니다.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prednisolone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나반응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치료가 되어야 소실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prednisolone의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나반응은 주로 눈, 손, 발에 나타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토안, 근육위축, 수하수(drop hand), 족하수(drop foot) 과 수지의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12. 매년 새로운 환자가 생긴다면 도대체 그분들은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

치료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치료받지 않는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맨 처음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무방비 상태인가요?

기존에 한센병에 걸렸던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부 접촉이나 공기 접촉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환자가 많았던 시기에는 접촉한 경로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들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출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인의 99.99% 는 나균에 대항하는 면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무방비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나균에 대한 면역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할 필요도 없고,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생하는 경우라 하여도 치료를 잘하면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센병은 통원치료가 기본 원칙입니다. 격리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입원치료합니다. 대개 2년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한센병 장애발생

한센병 및 나반응
적절한 조기 치료

기형 발생 안됨

적절하지 못한 치료 및
지연

원발성 기형 발생

감각이 소실되고 마비된
부위의 적절한 관리

속발성 기형 발생 안됨

적절한 관리부족

속발성 기형 발생

☞장애의 유형

원발성 장애	속발성 장애
나균에 의한 조직 반응에 의해 직접발생	감각 소실에 의한 조직 손상에 의해 발생
미모탈락, 사자얼굴, 여성형 유방 코 함몰, 수하수 등	족부 궤양, 수지 탈락 각막 궤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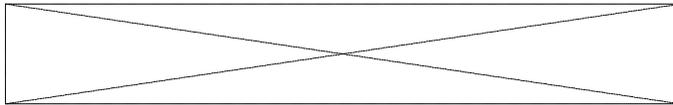
☞각 신경들의 손상에 따른 변화

감각신경	감각 이상 및 감각 소실	손발의 궤양, 각막 궤양 각막 혼탁
운동신경	근육의 약화 및 마비	갈고리 손, 족하수
자율신경	한센, 피지선의기능 소실	피부건조, 피부 갈라짐, 궤양

📁 정리 들어갑니다!

한센병에 관한 상식 및 일러두기

- 한센병은 유전이 아닌 전염병이다.
- 한센병은 모든 전염병 중에서 전파도가 매우 낮은 질환이다.
- 전 세계 인구의 95%는 한센병에 자연저항을 가지고 있다.
- 환자의 경우도 리팜핀(리팜피신) 600mg(4알)을 1회만 복용하면 체내에 있는 한센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하게 된다.
-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앤다.
- 한센병 환자들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된다. (사회적 불이익 / 2세들의 아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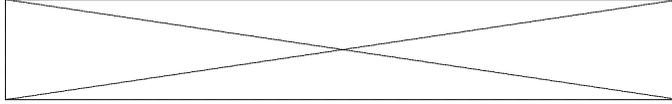


📁 나로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과 봉래면을 이루는 섬입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섬으로, 내나로도 와 외나로도 로 이루어져 있다. 기암괴석과 깨끗한 바다, 소나무숲, 유자나무, 계단식 논밭과 사철 따뜻한 날씨 등이 섬의 특징입니다. 고흥읍에서 25km 떨어진 해상에 있어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1994년 고흥군과 내나도도를 잇는 나로대교가 놓이고 이듬해에 내나도도와 외나도도를 잇는 나로2대교가 놓이면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섬 전체가 관광지라고 할 만큼 곳곳에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나로도·발포·덕흥·남열·대전·염포 등 수심이 얕은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간조 때면 백사장에서 조개를 주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해서 일년 내내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음 공동체란?

장성 남면 백운교회의 남상도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장성 농민회를 중심으로 80년대 현실사회와 농업,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앞장서서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운동의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고 농업 농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 생명, 민족공동체에 근거한 생산, 유통,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생활 속에서 농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호남 최초의 유기농업 단체인 한마음공동체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즉, 한마음공동체는 모여 사는 생활공동체가 아닌 생명 먹거리를 위한 경제 목적 공동체이며, 한마음유기농업 영농조합 법인의 이름입니다.

☞한마음 공동체에는 지금..?

1. 한마음신용협동조합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자립 경제를 세우기 위한 운동입니다. 농촌에는 농협과 축협이라는 단체가 있으나 농민의 정치, 경제적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농민은 농민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이 필요하고, 이는 농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나갑니다.

2. 환경농업 교육장(한마음자연학교)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은 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한마음 공동체는 환경농업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의 폐교를 인수, 환경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도·농간 직거래를 확대하고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및 신뢰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농사의 체험과 농산물의 소중함 및 먹거리의 중요성을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의 장이 되며, 농민들에게는 그동안 한마음에서 쌓아온 유기농법의 경험을 토론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1)현장학습 당지시설

유기농업의 귀중함과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의 중요성을 안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시킵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환경농업을 체험하므로 환경농산물에 대한 기술 습득 및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전라남도 지역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장, 숙박시설, 체험시설(미꾸라지, 우렁이 체험장, 천연염색, 도예체험, 황토집 체험, 주말농장, 유기농업단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나비공충전시관

3)생태유치원

☞우린 무슨 체험을 하게 되지요?

1. 천연염색

2. 도예체험

3. 농사체험(유기농법이 뭐예요?)

4. 황토집 체험

개별

1. 용어

그 동안 갯벌을 지칭하는 말로 ‘개펄, 갯빨, 개빨, 간석지, 간사지, 해택’ 등 다양한 동의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순 우리말인 ‘갯벌’이 더 일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2. 갯벌이란?

조석의 차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갯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으로 연안습지의 일부분이다.

습지보전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연안습지는 간조와 만조차이로 드러나는 해안의 공간으로 내륙 습지와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연안습지는 해안의 바위해안, 모래해안, 갯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갯벌이 그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조 때에는 물 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생태계가 접하는 곳으로 두 생태계의 완충작용뿐만 아니라 연안생태계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갯벌 지형은 해안육지 - 염습지식생 - 갯벌의 순으로 바다로 발달하는데 이 때 갯벌 상부에 발달하는 염습지는 육지로부터 영양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생산력이 매우 높아 주요한 수산물의 생산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다고 알려진 열대 우림이나 산호초 해역과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생산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3. 갯벌의 기능

연안 습지 생태계는

- ㉠자연 정화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 ㉡자연 재해와 기후를 조절하고,
- ㉢연안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태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 ㉣양식업 등에 이용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발휘한다. 최근에는,
- ㉤관광이나 휴식을 위한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 ㉥자연 탐구 학습을 위한 교육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

A. 자연 정화조의 기능

갯벌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천에 의하여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은 물이 갯벌에 유입될 때에는 갯벌의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식생이 유속을 떨어뜨려 부유물질과 그 밖의 여러 물질이 이곳에 퇴적된다. 또한, 갯벌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이시오우 조간대를 대상으로 한 갯벌의 오염정화능력 실험에 의하면 이 갯벌 전체(10km²)가 갖는 정화능력은 25.3km²의 면적을 가진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하수종말처리시설에 상당한다고 한다.

미국의 오덤(Odum)교수는 0.01km²의 갯벌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1.7kg을 정화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의 새만금지구 갯벌(208km²)에 응용하면 새만금지구 갯벌의 정화기능은 리터당 100mg의 BOD를 정화할 수 있는 10만톤 규모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정할 경우 약 40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능력에 버금간다. 이를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용인 172억원으로 환산하면 새만금지구 갯벌의 정화기능의 총가치는 7,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B. 자연 재해와 기후 조절의 기능

습지는 마치 '자연의 스펀지'처럼 홍수나 빗물 등 표면수의 급류를 일차적으로 차단하여 흡수한 뒤 천천히 방류시키는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높은 수위를 일단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하안이나 해안의 침식을 막고 홍수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완충지의 역할을 한다.

습지를 구성하는 식물의 뿌리는 토사를 붙잡아 고정하고, 줄기나 잎은 파랑 에너지를 흡수하며 강한 유속을 약화시킨다. 특히 해안 습지가 토사를 고정시키면 자연히 지반이 상승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갯벌이나 염습지 식생, 기타 내륙 습지는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지역에 따라 그 면적이 방대하면 국지적으로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C. 생태적 기능

해양 생태계 중에서 1차 생산력의 연평균 생산율을 살펴보면 하구역이나 해조숲-산호초 생태계의 생산력이 대륙붕이나 용승 해역보다 4배 정도 더 높고 외해역보다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습지 생태계의 생산력이 대륙붕보다는 10배, 외해역보다는 거의 30배 이상 높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 다만 외해역은 생산력이 낮다 할지라도 그 면적이 전세계 해역의 90퍼센트 이상이기 때문에 지구 해양 생산력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갯벌은 회유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급식이나 휴식 또는 번식 장소로 이용된다. 어떤 종류의 철새들은 특정 습지를 통과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람사협약이 제정되었다.

D. 경제적 가치

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갯벌은 일차생산성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이에 의존하는 개체도 풍부하다.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어류는 230종, 계류가 193종, 새우류가 74종, 조개류가 58종 이상을 헤아린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안해양생물의 66%가 갯벌생태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가 먹이와 번식장소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서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로 외해역에 비하여 10~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의 3배 내지 10배 정도의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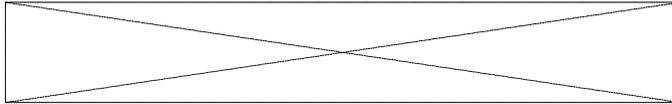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연안 습지나 갯벌 그 자체의 이용이나 효용성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곳의 생물들로부터 귀중한 의약품이나 신물질 등이 추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염습지 식생이나 갯벌에서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머드팩 같은 서해안의 개펄을 이용하는 상품을 개발하였고, 개펄 마사지가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여 펄갯벌에서 얼굴에 온통 펄칠을 하고 다니는 아가씨들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이처럼 갯벌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극기 훈련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 염습지 식생을 구성하는 해홍나물이나 칠면초, 나문재 등의 어린순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어촌도 많다.

E. 문화적 기능

최근 들어 습지는 낚시나 해수욕, 휴식, 관광 등을 제공하는 레저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사진가나 화가, 작가들에게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나 바다 소리 등으로 작품의 소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F. 자연 탐구를 위한 교육 장소로서의 기능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그 면적으로 보아 캐나다의 동부 해안, 미국의 동부 해안과 북해 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의 5대 갯벌로 꼽힌다. 최근에는 갯벌이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로 인식되어 자연 관찰과 탐조 등을 위한 자연 학습장과 학술 연구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천수만 일대와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 형성된 갈대숲의 연안 습지는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좋은 자연 학습장이 되고 있다.



☞광주?

광주라는 이름은 한문 그대로 빛 "광(光)" 고을 "주(州)" 빛의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광주는요

1. 서남권의 중추관리도시

광주는 입지여건으로 보아 호남의 중심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국을 1일 생활권에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본격적인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시책으로 추진 중인 광주첨단산업단지 건설, 생산도시화의 달성, 주거, 휴식공간의 확충 등 대단위 도시 개발 사업들이 가속화 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서남권 중추 관리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유서깊은 애국충절의 도시

임진왜란 7년여에도 왜병의 침략을 끝까지 막아낸 구국의 용기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광주는 국난이 닥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는 애국충절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란시에는 의병으로 나가 목숨을 다하여 싸웠으며, 일제시대에는 항일독립운동, 1980년 5월에는 정의, 민주, 인권,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시민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세계 속의 민주성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5.18묘역성역화 사업을 완료하는 등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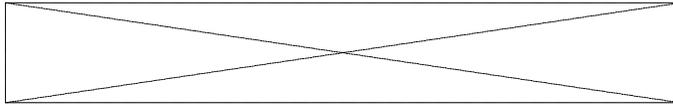
예로부터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 일컬었습니다. 학덕이 높은 선비와 시인, 묵객을 많이 배출하였고 남종화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주민의 문화수준이 높고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명리를 탐하지 않는 소박한 기질과 아울러 풍류와 서화, 가무를 즐기는 뿌리 깊은 문화예술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95년에는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여 2년마다 개최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속의 예향’으로 자리잡이 가고 있습니다.

4. 전총적인 교육의 도시

많은 명현거유를 낳은 교육도시 광주는 2000년 4월 1일 현재 학교는 총 507개교에 학생수는 약 404.065명으로 전체인구의 29.5%, 세대당 학생수가 0.9명에 이르고 있어 전총적인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기까지

일제 36년 끝에 얻은 8.15광복, 온 국민이 기뻐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광복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국토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며, 남한의 경우는 그나마도 친일파들의 숙청이 안되서 일제시대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독립투사가 아닌 미군정의 보호 아래 친일파들이 이전의 군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두머리였던 일본인들이 돌아갔으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과 손을 잡게 되었는데,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비호하고 친일파들은 이승만에게 충성하면서 자유당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학생들의 독재에 대한 불만은 점차 높아져갔으며, 그 와중에 1960년 3월에 마산 앞 바다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눈에 최루탄을 박은 채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시위 중에 죽은 학생을 수장했던 것이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들끓은 민중은 마침내 4.19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4.19의 기쁨도 잠시였으니, 자유당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들이 흘린 피의 댓가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국정을 펴나가는 커녕 신당과 구당으로 나뉘어 서로의 이익을 차리기에 급급했고, 결국 이듬해인 1961년에 박정희, 김종필 등에 의한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후 18년 동안 참으로 지독한 독재를 자행하다가 결국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당합니다.

박정희가 죽자 그해 12월 12일에 전두환, 노태우 등이 다시 탱크를 몰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계엄이 확대됨과 동시에 당시 민주투사였던 김대중 전대통령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구속시킵니다.

결국 5월 18일 전남대학생들을 비롯한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게 되며, 이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함으로써 마침내 위대한 5.18민중항쟁은 그 슬픈 서막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1. 5.18민주항쟁은 누가?

그건 시민이지요.

물론 처음에 학생들이 주체가 되었지만 후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되었습니다.

2. 5.18민주항쟁은 왜 일어났나요?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신독재 체제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붕괴되자 민주화 운동이 발 빠르게 전개 되었는데요,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부의 투입이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80년대 초부터 일던 민주화의 요구와 군부의 마찰이 더 심각하게 발전되어서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공포되면서 전국에 주요 대학들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죠. 5월 18일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를 공수부대에 의해 무참히 사상을 당했는데요, 이를 발단으로 대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공수부대원들은 무차별 진압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 구타를 했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게 되었죠.

이렇게 더 커진 광주사태는 결국 유혈사태로 까지 심각하게 커지게 되었답니다.

이런 상황이 5.27일까지 계속 되었고, 시민을 향한 발포까지도 감행을 하게 되었지요. 무차별 학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로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참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망자 : 154명

행방불명자 : 70명

부상자 : 3,193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 1,589명

총 5,006명 중 중복인원 694명 제외

총계 : 4,312명

4. 누가?

주체는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두환 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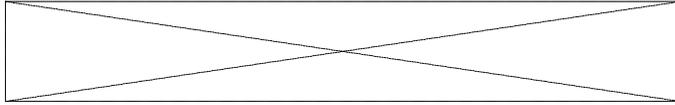
그리고 1996년 이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5.18민주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뭐가요?

5.18민주항쟁은 불법적으로 집권을 획책하는 전두환 및 신 군부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시민 봉기였습니다. 군부의 거대한 무력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전개된 5.18 민주항쟁은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강한 영원이 분출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항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과 학생들은 한 두 명의 영웅적인 항쟁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에 저항했으며, 당국에 의해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되면서도 광주시민들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5.18민주항쟁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통해 표출되었던 동학혁명 및 4.19와 더불어 자주, 민주, 인권,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이자 민주화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민주항쟁으로 역사속의 빛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80년 광주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봄날(저자 임철우)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세요.)



바위섬 (배창희 작사·작곡 김원중 노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 광주항쟁을 은유적으로 표현

망월동

언니 오빠들이 봄비를 맞으며 / 노래를 부릅니다.
무덤 속의 오빠들에게 / 들려 주는 노래입니다.
안경 쓴 할머니가 / 비를 맞으며
영영 읊습니다.
무덤 속의 언니가 / 보고 싶은가 봅니다.
노래 소리를 듣고 / 무덤 속에서
제비 꽃이 피어납니다.
영영 우는 소리를 듣고 / 풀잎들이
할머니 머리를 만져 줍니다.
5.18 묘역에서는 / 비가 와도
깃발이 펄럭입니다.
김진경 (광주 서석국교 4학년)

[보리피리]한하운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ㄹ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 ㄹ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 - ㄹ 날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 ㄹ 날니리.

전라도 길

- 소록도로 가는 길에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낮선 친구 만나면
우리를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쑤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찢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손가락 한 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 마디
머리를 굼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 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쓴다
하얀 봉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에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목숨

쓰레기통과
쓰레기통과 나란히 앉아서
밤을 새운다.

눈 깜박하는 사이에
죽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눈깜박하는 사이에
아직도 살아 있는 목숨이 꿈틀 만져진다.

배꼽 아래 손을 넣으면
37도의 체온이
한 마리 씹어가는 생선처럼 뭉클 쥐어진다.

아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나의 목숨은
아직도 하늘에 별처럼 또렷한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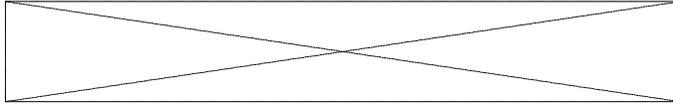
파랑새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인솔교사

이임주 선생님 : 017-520-9413

태영철 선생님 : 017-559-7137

김윤하 선생님 : 016-569-7632

남경록 선생님 : 010-9780-3362

선선옥 선생님 : 010-4715-7971

황선호 선생님 : 019-9764-0127

머물곳

산청 성심원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0번지, 전화 (055) 973-6966

소록도 자원봉사센터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번지 (061) 840-0500
서무과 자원봉사계 (061)840-0552, 0583

나로도 신성민박 : (061) 833-6735

장성 한마음공동체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평산리 614-27
자연학교 (061) 393-1925

간디청소년학교 : (043) 653-5792